

王國維 《宋元戲曲史》연구

권 용 호*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宋元戲曲史》의 판본현황
II. 王國維의 戲曲研究: 《曲錄》에서 《宋元戲曲史》까지	V. 《宋元戲曲史》의 중국희곡 연구에 대한 영향
III. 《宋元戲曲史》의 집필 장소와 시기	V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宋元戲曲史》는 중국근대의 대학자 王國維가 1913년에 쓴 희곡논저이다. 왕국유는 1907년부터 희곡연구를 시작하여 《曲錄》(1908)·《戲曲考原》(1909)·《古劇脚色考》(1911) 등의 희곡논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송원희곡사》(1913)를 집필하였다. 이후 왕국유는 희곡연구에서 손을 떼고 고대사 연구로 전향하게 된다. 따라서 《송원희곡사》는 왕국유의 희곡연구에 있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송원희곡사》는 저자의 고대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서양의 희곡 이론을 토대로 중국희곡의 기원과 그 형성 및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중국희곡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曲은 詩의 한 갈래이다”¹⁾라고 여긴 明·清代 戲曲家들의 戲曲觀에서 탈

* 한동대학교 객원교수

1) 何良俊, 《曲論》,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4책(第4版;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피하여 무대예술로써의 중국희곡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왕국유의 이러한 관점은 《송원희곡사》가 출간된 후 많은 희곡연구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다양한 각도에서 중국희곡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송원희곡사》는 20세기 중국희곡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송원희곡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왕국유의 희곡론 내지 이 책이 중국희곡연구사에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위주로 논술하는데 치중되었을 뿐 이 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²⁾ 왕국유의 또 다른 문학방면의 저작인 《紅樓夢評論》과 《人間詞話》의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³⁾ 본고는 이상의 점에 착안하여 왕국유가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까지 그의 희곡연구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송원희곡사》의 집필시기·장소와 판본현황 및 중국희곡연구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82) 6쪽: “夫詩變而爲詞, 詞變而爲歌曲, 則歌曲乃詩之流別.”

- 2) 왕국유의 희곡론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 문장으로는 金名의 《王國維與滑稽戲》, 《王國維學術研究論集》第1輯(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3년)·劉文峰的 《以歌舞演故事-簡論王國維對戲曲基本特徵的認識及意義》, 《戲曲研究》第54輯(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년)·吳戈의 《戲曲的定義與王國維的戲劇觀》, 《戲劇·戲曲研究》제2기(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8년) 등이 있다. 《송원희곡사》의 역사적 의의를 다룬 문장으로는 盧善慶의 《王國維與中國古典戲曲史研究》, 《王國維學術研究論集》第1輯(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3년)·傅曉航의 《“新史學的開山”-談王國維對戲曲史科學的貢獻》, 《戲曲研究》第54輯(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년)·劉禎의 《王國維與現代中國戲曲史學》, 《戲曲研究》第54輯(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년) 등이 있다. 국내에서 왕국유의 희곡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으로는 오수경의 《20세기 中國演劇史 연구의 성과와 한계》, 《中國戲曲》제7집(서울: 新雅社, 1999년)이 있다.
- 3) 국내의 《人間詞話》연구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위논문들이 발표되었다: 李哲理의 《人間詞話研究》(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2년)·李容宰의 《王國維境界說研究》(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6년)·류창교의 《王國維文藝批評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년) 등. 이밖에 소논문으로는 김종현의 《王國維文藝美學論研究》(《中國文學研究》제8집, 1990년)·김소현의 《王國維 境界論의 性格과 構造》(《석당논총》18집, 1992년) 등이 발표되었다.

II. 王國維의 戲曲研究: 《曲錄》에서 《宋元戲曲史》까지

왕국유는 20살까지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흥미를 잃고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1902년 羅振玉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나 병이 생겨 조기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게 된다. 왕국유는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가족들의 잇단 사망을 맞이하면서 철학연구에서 문학연구로 전향하게 된다.⁴⁾ 왕국유는 1907년 전후로 詞를 짓기 시작했고, 1907년 9월 무렵에 희곡연구에 뜻을 두었다. 1907년 9월에 쓴 《自序(二)》에는 그가 희곡연구에 뜻을 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근년에 흥미가 문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예는 사를 지어 성공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사의 성공으로 희곡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이 역시 최근의 사치스런 바람이었다……내가 희곡에 뜻을 둔 까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희곡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⁵⁾

이상에서 보면 당시 왕국유가 희곡에 뜻을 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지은 사의 성공으로 고무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희곡이 그 문학성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무시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밖에 당시 북경의 독서환경 역시 왕국유가 희곡연구에 몰두하는데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07년 무렵 왕국유는 京師圖書館에 근무하면서 도서관내의 많은 희곡관련 장서를 접할 수 있었고 또 羅振玉·繆荃孫·董康·劉世珩 등의 유명 장서가들과 교류하면

4) 1906년 8월에 부친 王乃譽가, 1907년 7월에는 부인 莫氏가, 1908년 1월에 계모 葉孺人이 각각 사망했다.

5) 《自序(二)》, 《王國維文集》(第1版;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년), 473-474쪽: “近年嗜好之移于文學亦有由焉, 則填詞之成功是也……因詞之成功而志于戲曲, 此亦近日之奢願也……余所以有志于戲曲者, 又自有故. 吾中國文學最不振者莫戲曲若.”

서 그들의 개인장서를 통해 많은 진귀한 戲曲善本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왕국유가 중국희곡을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왕국유는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1908년 9월에 첫 번째 희곡논저인 《곡록》의 초고를 완성했다. 《곡록》은 宋·金の 雜劇과 院本부터 明·淸의 傳奇까지 각 전적과 書目에 나오는 극들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제1권에서는 宋雜劇 280편, 金院本 690편, 宋南戲 3편을 수록하고 있고, 제2권에서 5권까지는 잡극과 전기 1971편을 수록하고 있다. 제6권은 잡극과 전기 總集으로 戲曲善本 5권, 散曲과 戲曲總集 29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밖에 曲譜·韻書·戲曲批評著作을 수록하고 있다. 1909년은 가장 많은 희곡논저들이 나온 해이다. 왕국유는 1909년 1월과 3월 사이에 《戲曲考原》을 완성하였다. 본서는 漢의 樂府와 角抵戲에서 시작하여 唐의 大面·撥頭·踏搖娘과 宋의 雜극에 이르는 희곡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희곡이라는 것은 가무로써 고사를 공연하는 것이다”⁶⁾라고 하여 희곡의 정의를 내린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同年 7월에는 《곡록》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본서는 宋·金の 雜극과 원본에서 淸의 전기까지 총 3794편의 극명을 수록하고 있다. 동년 11월에서 12월까지 《優語錄》·《唐宋大曲考》·《曲調源流表》·《錄曲餘談》을 차례로 지었다. 《우어록》은 宋의 배우와 관련된 기록들을 종합하고 있다. 《당송대곡고》는 大曲의 원류를 漢·魏로 거슬러 올라가 그 형식 및 구조를 밝히고, 당·송 대곡의 체제와 형식을 고증하며 원잡극과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곡조원류표》는 실전되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각 宮調에 예속된 곡조의 유래를 표로 나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녹곡여담》은 중국희

6) 《戲曲考原》，《王國維文集》(第1版；北京：中國文史出版社，1997年)，425쪽：“戲曲者，謂以歌舞演故事也。”

7) 袁英光·劉寅生의 《王國維年譜長編》(第1版；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5年，58쪽)에는 이 책이 190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하며, 이 책의 유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其中《曲調源流表》未清稿，底稿已散失，先生在時，趙萬里嘗以此爲問，彼時已不可得見，因爲先生在中年後專門

곡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하였던 왕국유 개인의 견해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본서의 내용은 당의 가무희·전기 용어의 유래·배역·원본·雜劇家·南戲家·雜劇善本集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910년 12월에는 《新編錄鬼簿校註》를 짓고, 1911년 1월에 《古劇脚色考》를 지었다. 《고극 각색고》는 희극에 등장하는 다양한 배역들의 의미와 유래를 고증하고 있다. 1911년 10월 辛亥革命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왕국유는 북경을 떠나고, 동년 11월 나진옥을 따라 일본 京都로 피난하면서 그의 국내에서의 희곡연구는 끝나게 된다.

일본에 도착한 뒤 왕국유는 나진옥의 장서를 정리하는 한편 1912년 9월부터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3개월간 힘을 쏟아 1913년 1월에 《송원희곡사》를 집필하였다. 왕국유는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게 된 과정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각종 자료는 모두 내가 직접 수집한 것이고, 설명한 부분 역시 대부분 나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세상에 이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이 학문에 몸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책으로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⁸⁾

그의 설명대로 《송원희곡사》는 전대의 희곡가들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사학적 관점에서 희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희곡의 체계를 세운 첫 번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총 16장에 自序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별로 볼 때 총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부분: 제1장 <上古시대에서 五代까지의 戲劇>
 2부분: 제2장 <宋의 滑稽戲> · 제3장 <宋의 小說과 雜戲> ·
 제4장 <宋의 樂曲> · 제5장 <宋의 官本雜劇段數>

研究經史之學, 于早年研究成果并不甚珍惜。”

8) 《宋元戲曲史·自序》: “凡諸材料, 皆余所搜集; 其所說明, 亦大抵余之所創獲也. 世之爲此學者自余始, 其所貢于此學者, 亦以此書爲多。”

- 3부분: 제6장 <金の 院本名目>
 4부분: 제7장 <古劇의 구조>
 5부분: 제8장 <元雜劇의 연원> · 제9장 <元雜劇의 성행시기와 지역> ·
 제10장 <元雜劇의 전래와 실전> · 제11장 <元雜劇의 구조> ·
 제12장 <元雜劇의 작품> · 제13장 <元院本> ·
 제14장 <元南戲의 작품> · 제15장 <元南戲의 작품>
 6부분: 제16장 <餘論> · 부록

제1부분은 上古시대 巫人의 가무에서 출발하여 漢의 百戲와 唐의 歌舞戲와 滑稽戲에서 중국희극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고증하고 있다. 왕국유는 중국희극이 상고시대의 巫가 祭儀활동에서 행한 가무와 優의 해학적인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漢의 角抵戲·東海黃公과 晉의 參軍戲의 연출상황을 분석하고 “단순히 가무와 해학을 위주로 하였다”⁹⁾라고 하며 진정한 희극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北齊의 《代面》과 《踏搖娘》을 분석하고 후세의 희극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였다.

두 극은 모두 노래와 춤이 있으면서 한 가지 고사를 공연하였다. 이전의 희극들은 노래와 춤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고사를 공연하지 않았는데, 고사를 공연하더라도 가무를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극은) 배우들의 희극 중 독창적인 선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제2부분은 송의 희극을 형식과 내용방면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골계희의 분석을 통해 당의 골계희보다 더욱 발전된 면모를 규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小說을 통해 사실을 공연한 희극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詞→轉踏→隊舞→曲破→大曲→諸宮調·賺詞로 이어지는 송의 음악이 원잡극의 套曲형식에 어떻게 영향

9) 《宋元戲曲史·제1장》: “但以歌舞及戲謔爲事。”

10) 《宋元戲曲史·제1장》: “此二者皆有歌有舞, 以演一事. 而前此雖有歌舞, 未用之以演故事, 雖演故事, 未嘗合以歌舞. 不可謂非優戲之創例。”

을 끼쳤는지를 고증하고 있다. 이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제궁조와 잡사 형식을 고증해낸 것은 잊혀져가던 한 劇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부분은 금원본의 창작시기와 원본에 사용된 곡명의 유래 등에 대해 고증하고 있다. 원본 역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왕국유에 의해 드러난 극으로, 왕국유는 이곳에서 원본이 송의 잡극에서 원잡극으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적 형식임을 규명하였다.

제4부분은 제2부분과 제3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古劇의 구조와 각종 배역의 명칭과 맡은 역할을 고증하고 있다. 왕국유는 고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송·금 이전의 잡극과 원본은 현재 그 작품이 전해지지 않는다. 또 이들 劇目으로 봤을 때 그것의 구조는 후세 희극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고극이라고 하였다.¹¹⁾

그가 말하는 “고극”이란 元 이전의 희곡형식인 송·금의 잡극과 원본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왕국유는 이를 통해 고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당대에는 가무극과 골계희만 있었고, 송·금대에 와서야 순수하게 고사를 공연한 극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희극은 송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송·금대 희극의 구조는 상술한 바와 같으나 기본적으로 작품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 代言體의 희극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희극을 논하려면 원잡극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²⁾

11) 《宋元戲曲史·제7장》: “宋金以前雜劇院本, 今無一存. 又自其目觀之, 其結構與後世戲劇迥異. 故謂之古劇.”

12) 《宋元戲曲史·제7장》: “唐代僅有歌舞劇及滑稽劇, 至宋金二代而始有純粹演故事之劇, 故雖謂真正之戲劇起于宋代, 無不可也. 然宋金演劇之結構, 雖略如上, 而基本則無一存, 故當日已有代言體之戲曲否, 已不可知. 而論真正之戲曲, 不能不從元雜劇始也.”

제5부분은 원대의 희곡 양식인 잡극·원본·남희를 논술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잡극이 전대의 대곡이나 제공조보다 발전된 모습을 설명하며 잡극에 사용된 곡을 토대로 잡극의 유래를 추론하였고, 아울러 잡극에서 곡을 안배하는 규칙과 잡극의 소재 역시 고극에서 취한 것이 많았음을 규명하였다. 제9장에서는 잡극이 창작된 시기와 王實甫·白朴 같은 주요 雜劇家들의 활동시기에 대해 고증하고 있다. 이곳에서 왕국유는 잡극의 창작 시기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다.

잡극은 실로 關漢卿에 의해 창작되었고, 그 창작연대는 분명히 金 天興 연간과 元 中統 연간 2·30년간이었음을 대략적이거나 유추해볼 수 있다.¹³⁾

이외에 잡극의 창작연대를 세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작가와 특징을 서술하였고, 잡극가들이 활동한 지역을 귀납하였다. 제10장에서는 잡극의 전체 수량과 현전하는 작품 수를 정리하였다. 제11장은 원잡극의 구조, 즉 체계·賓白·창하는 형식·잡극에 사용되는 기물 등을 고증하고 있다. 제12장은 잡극의 사상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왕국유는 잡극을 중국전통문학에 비견하면서 그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元曲의 뛰어난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고극의 위대한 문학은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지만 元曲보다 뛰어난 것은 없었다.¹⁴⁾

그의 평가는 고대 문인들에게 무시되었던 잡극의 가치를 전통문학의 핵심인 시·사에 버금가는 위치로 끌어올림으로써 중국희곡연구에 기폭제가

13) 《宋元戲曲史·제9장》: “雜劇苟爲漢卿所創, 則其創作之時, 必在金天興與元中統間二三十年之中, 此可略得而推測者也.”

14) 《宋元戲曲史·제12장》: “元曲之佳處何在? 一言以蔽之, 曰: 自然而已矣. 古今之大文學, 無不以自然勝, 而莫著于元曲.”

되었다. 이외에 元曲의 체제를 小令과 套數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각 잡극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풍격을 설명하였다. 제13장에서는 현전하는 원본의 작품을 통해 그 구조와 배역들을 고증하고 있다. 제14장에서는 남희가 고극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고증하고, 남희에서 곡을 배치하는 규칙과 남희의 창작시기 및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외에 四大南戲와 《琵琶記》의 창작연대 및 작가를 고증하였다. 제15장에서는 남희의 문학적 가치를 잡극과 동등하게 인정하였다.

元南戲의 뛰어난 점은 한마디로 말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意境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그래서 원잡극과 남희의 뛰어난 점은 대체로 같다. 다만 北劇은 비장하면서 웅장하고 남희는 부드럽고 곡절적인 특징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¹⁵⁾

왕국유는 이곳에서 중국 희곡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남희를 집중적으로 고증하여 그 실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학적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이후의 남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¹⁶⁾

제6부분은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희곡관계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16장은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희곡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다.

중국희곡은 漢·魏이래 百戲와 합쳐지고 당대에 이르러 가무희와 골계

15) 《宋元戲曲史·제15장》: “元南戲之佳處, 亦一言以蔽之, 曰自然而已矣. 申言之, 則亦不過一言, 曰有意境而已矣. 故元代南北二戲, 佳處略同. 唯北劇悲壯沈雄, 南戲清柔曲折, 此外殆無區別.”

16) 南戲 연구는 1930년대 자료의 수집과 발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錢南揚의 《宋元南戲考》(1930)와 《永樂大典戲文三種》(1931), 趙景深의 《宋元戲文本事》(1934), 錢南揚의 《宋元南戲百一錄》(1934), 陸侃如·馮沅君的 《南戲拾遺》(1936) 등이 출간되었다. 50년대에는 錢南揚의 《宋元戲文輯佚》(1956)이 출간되었고, 80년대에 와서는 錢南揚의 《戲文概論》(1981)과 劉念茲의 《南戲新證》(1986) 등의 저작이 나왔으며 90년대에는 俞爲民的 《宋元南戲考述》 등의 논저들이 출간되었다.

희로 나누어진다. 송대에는 골계회가 크게 성행하고 동시에 가무를 빌어 고사를 점차 윤색하였으며 이에 가무회는 가무만 하지 않고 고사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원잡극이 출현하자 마침내 격식이 정해지고, 남희가 출현하자 변화가 더욱 많아진다. 이리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희곡이 출현하게 된다.¹⁷⁾

이밖에 雜劇·院本·傳奇·戲文의 함의와 그 변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중국희곡과 외국희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부록에서는 40여명의 잡극가와 남희 작가 세 사람의 경력과 작품을 기록하였고 동시에 그들과 동시대에 같은 이름인 작가들을 고찰하였다.

이후 왕국유는 1913년 여름에 《譯本琵琶記序》와 9월에 《雜劇十段錦跋》을 썼지만 사실상 《송원희곡사》의 집필을 끝으로 희곡연구를 마감하고 국학연구로 전향하였다.

III. 《宋元戲曲史》의 집필 장소와 시기

1911년 10월 辛亥革命이 일어나자 왕국유는 가족과 함께 나진옥을 따라 天津에서 배를 타고 11월에 일본 경도에 오게 된다.¹⁸⁾ 나진옥은 당시 일본으로 오게 된 상황을 《狩野君山博士六十壽序》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辛亥年 한 가을에 革命軍이 일어나자, 선생께서는 內藤·富岡 제 선생들과 책을 옮기며 나에게 일본으로 건너가시라고 권했고, 또 이를 위해 경

17) 《宋元戲曲史·제16장》: “我國戲劇, 漢魏以來, 與百戲合, 至唐而分爲歌舞戲及滑稽戲二種. 宋時滑稽尤盛, 又漸藉歌舞以演飾故事, 于是向之歌舞戲, 不以歌舞爲主, 而以故事爲主. 至元雜劇出而體制遂定, 南戲出而變化更多. 于是我國始有純粹之戲曲.”

18) 본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년·월·일은 袁英光·劉寅生の 《王國維年譜長編》(제1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년)과 吳澤 主編의 《王國維全集·書信》(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4년)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도에 집을 골라 두겠다고 하였다. 나는 선생의 큰 뜻에 감동하여 바로 海寧 王愨공과 그 가족을 모셔오기로 했다. 배가 神戶에 이르자, 선생과 東西 兩京의 지인들이 모두 맞이하러 왔다.¹⁹⁾

이로 보면 나진옥과 왕국유 일행은 먼저 神戶에 도착해서 지인들의 환영을 받고 경도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도에 온 후 나진옥과 왕국유 일행은 어디에 정착했을까? 당시 숙부인 나진옥을 따라 일본에 함께 온 羅守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삼촌(羅振玉)께서 王國維·劉季英·羅振常 세 집안을 불러들여 京都의 田中村에서 함께 살았다. 오래지 않아 삼촌께서는 새집을 지으셔서 神樂岡으로 이사하셨고, 세 집안은 여전히 이웃하며 살았다. 劉氏 집안과 우리 집은 바로 건너편이었고, 王氏의 집은 두 세 집 건너 있었다.²⁰⁾

위의 문장에서 이들이 경도에 와서 정착한 곳은 바로 田中村이었고, 또 왕국유는 처음에 나진옥과 함께 살다가 나진옥이 神樂岡으로 이사한 후에 劉季英·羅振常의 가족과 계속 이웃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또 清木正兒가 쓴 《中國近世戲曲史·序》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治 45년(1912년) 2월에 나는 경도에 있는 전중촌의 외국인 거주지에 서 王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뵈었다.²¹⁾

19) 袁英光·劉寅生, 《王國維年譜長編》(제1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년), 73쪽에서 재인용: “辛亥仲秋, 革命軍起, 君與內藤·富岡諸君移書勸予浮海東渡, 且爲之卜宅于京都, 感君高義, 乃與海寧王愨公携家投止, 舟至神戶, 君與東西兩京知好咸來迎迓.”

20) 陳鴻祥, 《王國維傳》(제1판; 北京: 團結出版社, 1998년), 199쪽에서 재인용: “先伯(羅振玉)招致王(國維)·劉(季英)·羅(振常)三家同寓京都田中村. 爲時不長, 因先伯另筑新居, 又遷至神樂岡, 三家仍居比隣. 劉與予家僅隔壁, 王家則離兩三家.”

21) 袁英光·劉寅生, 같은 책, 77쪽에서 재인용: “明治四十五年二月, 余始謁王先生于京都田中村之僑寓.”

왕국유는 경도에 온 다음해인 1912년 2월에도 전중촌에서 나진옥의 식구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해 4월 왕국유는 나진옥의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여 인근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곳은 당시 나진옥이 일본으로 올 때 가져온 자신의 장서를 京都大學에 기증하자 왕국유가 매일 경도대학에 가서 나진옥의 장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볼 때 경도대학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13년 3월 26일 왕국유가 그의 절친한 학술계 선배인 繆荃孫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보름 후에 吉田町 神樂岡 8번지로 이사를 갑니다, 吉田山을 등지고 如意岳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羅 선생님과 董 선생님의 새 집과 아주 가까우며 조용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입니다. 다만 시내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²²⁾

이로 볼 때, 왕국유는 유계영·나진상 가족을 떠나 새로 이사한 곳, 즉 전중촌 일대에서 1년 정도를 살고 다음해 1913년 4월에 吉田町 新樂岡 8번지로 이사를 간 것이 된다. 또 그의 일본인 친구 鈴木虎雄은 《追憶王靜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왕 선생이 경도의 전중촌에 거주할 때, 자신의 희곡연구를 정리하고 있었다.²³⁾

그렇다면 왕국유는 吉田町 神樂岡으로 이사를 하기 전, 즉 전중촌에 살 때 자신의 희곡연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왕국유

22) 吳澤 主編, 《王國維全集·書信》(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4년), 35-36쪽: “半月以後, 移去吉田町神樂岡八番地, 背吉田山, 面如意岳, 而羅·董二公新居極近, 地亦幽勝, 惟去市略遠耳。”

23) 袁英光·劉寅生, 같은 책, 80쪽에서 재인용: “君寓居京都田中村, 正值其整理戲曲研究。”

는 자신의 희곡연구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송원희곡사》를 집필한 장소는 바로 경도에 처음 정착한 전중촌의 집에서 새로 이사한 인근의 집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곳은 여전히 전중촌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국유는 과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을까? 1912년 7월 20일 왕국유가 무전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元刊雜劇三十種》을 이미 보았는데, 黃蕘圃의 장서였습니다. 각 편마다 “大都新刊”·“古杭新刊”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며, 행간이 맞지 않고, 글자 크기도 바르지 않아 이리저리 맞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明初의 刊本이 아니고 元刊本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중 《元曲選》에 보이는 13편은 자구도 달랐으며, 17편은 보이지 않은 것이었으니 천하의 비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편 중 關漢卿의 《拜月亭》·楊梓의 《霍光鬼諫》(《樂郊私語》에 보인다) 같은 아주 진귀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다만 글자를 새긴 것이 좋지 않았고, 그 모양이 지금의 七字唱本 같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온 후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²⁴⁾

이 부분은 왕국유가 《송원희곡사》 제10장 <원잡극의 전래와 실전> 부분을 쓸 때 그대로 참고했던 부분으로, 왕국유는 이때부터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위한 생각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9월에는 《고극각색고》를 수정하여 자신의 희곡연구를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였다. 9월 6일 鈴木虎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 吳澤 主編, 같은 책, 28쪽: “《元刊雜劇三十種》已見過, 係黃蕘圃藏書, 各本有大都新刊·古杭新刊字樣, 行款, 字之大小亦不一, 係雜湊而成者. 唯確係元刊, 非明初刊本也. 其中《元曲選》所有者十三種, 字句亦不同, 無者十七種, 可謂海內外秘笈. 而此十七種中有甚可貴之品, 如關漢卿之《拜月亭》·楊梓之《霍光鬼諫》(見《樂郊私語》)等在內. 唯刻手不佳, 其式樣略如今之七字唱本. 此爲到東以來第一眼福也.”

《고극각색고》를 이미 다 수정 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정을 부탁드립니다.²⁵⁾

왕국유는 《고극각색고》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송원희곡사》의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12년 12월 28일 왕국유가鈴木虎雄에게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예전에 대학 장서에 명대 출간된 《堯山堂外記》라는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래 《송원희곡사》 초고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책 중의 金·元代 문인의 傳 일부분을 몹시 참고하고 싶네, 내 견해를 위해서 한번 빌려줄 수 있겠나?²⁶⁾

이 편지에 의하면 1912년 12월 28일쯤에 《송원희곡사》의 초고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송원희곡사·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壬子年 말, 객지에 머물며 시간이 많이 남아, 3개월 동안 힘을 쏟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²⁷⁾

이곳에서 말하는 “壬子年 말”은 사실 음력으로 말한 것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1912년 말에서 1913년 초가 된다. 따라서 초고를 완성할 때쯤을 기준으로 할 때 3개월 전 이라면 1912년 9월 내지 10월에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왕국유가 《고극각색고》의 수정을 완료하는 시점인 9월 무렵과 시기가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국유는 1912년 9월내지 10월쯤에 《송원희곡

25) 吳澤 主編, 같은 책, 29-30쪽: “《古劇脚色考》已修改畢, 請教正爲荷.”

26) 吳澤 主編, 같은 책, 33쪽: “前聞大學藏書中有明人《堯山堂外紀》一書, 近因起草《宋元戲曲史》, 頗思參考其中金元人傳一部分, 能爲說法代借一閱否?”

27) 《宋元戲曲史·自序》: “壬子歲莫, 旅居多暇, 乃以三月之力, 寫爲此書.”

사》의 집필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왕국유는 비록 《송원희곡사》의 초고를 거의 완성했지만 12월 말에 위장병과 두통·치통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1913년을 맞이하게 된다. 1913년 1월 5일 왕국유가 무전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근래 商務印書館에 출간하려는 《송원희곡사》가 거의 탈고되었습니다. 모두 16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원고료는 1천자 당 3원으로, 총 50,000여자여서, 200백 원에 불과합니다.²⁸⁾

이로 봤을 때, 왕국유는 1913년 1월 5일쯤에 《송원희곡사》를 거의 탈고하였으며, 1월 중에 집필을 최종 마무리 하였을 것이다. 《송원희곡사》는 1913년 4월부터 1913년 3월까지 1년 동안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하는 《東方雜誌》에 장별로 8회에 걸쳐 발표되었고, 1915년에 상무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IV. 《宋元戲曲史》의 판본현황

왕국유는 1913년 1월에 《송원희곡사》를 완성하여 그해 4월부터 1914년 3월까지 장별로 8회에 걸쳐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하는 《동방잡지》에 발표하였다. 발표한 순서를 보면 《동방잡지》제9권 제10호에 제1장을, 제11호에 제2장을, 제10권 제3호에 제3장과 제4장을, 제4호에 제6장과 제7장을, 제5호에 제8장과 제9장을, 제6호에 제10장과 제11장을, 제8호에 제12장·제13장·제14장을, 제9호에 제15장과 제16장 및 부록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연재하는 형식으로 발표된 최초의 《송원희곡사》이나 정식의

28) 吳澤 主編, 같은 책, 33-34쪽: “近爲商務印書館作《宋元戲曲史》, 將近脫稿, 共分十六章. 潤筆每千字三元, 共五萬餘字, 不過得二百元.”

로 출판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915년 상무인서관에서 “國學小叢書”의 하나로, 《송원희곡사》를 출간한 것이 가장 이른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학소총서”본은 이후 계속 重印되면서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출판된 연대를 시기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宋元戲曲史》(國學小叢書), 中華民國 4년(1915년), 9월 初版.
2. 《宋元戲曲史》(國學小叢書), 中華民國 14년(1925년)
3. 《宋元戲曲史》(國學小叢書), 中華民國 22년(1933년), 國難後第1版.
4. 《宋元戲曲史》(國學小叢書), 中華民國 32년(1943년), 7월 渝第1版.
5. 《宋元戲曲史》(國學小叢書), 中華民國 33년(1944년), 12월 渝第2版.

“국학소총서”본 초판이 출간된 지 10년 후에 재판이 나오고, 30년대에 1번 40년대에 2번이 출간되었다. 초판의 특징은 세로로 글자를 배열하고 번체자를 쓰고 있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점을 찍고 있어 보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후 출간된 판본들은 초판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 중 1933년本에는 “國難後第一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中華民國 21년(1932) 1월 29일에 상무인서관이 폭격을 받아 무너진 뒤 출간된 첫 번째 판본이라는 의미이다. 1943년本과 1944년本에는 “渝”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渝”는 重慶의 약칭으로 重慶에서 출간된 판본으로 보인다.

1927년 왕국유 사망 후에는 지인과 제자들에 의해 그의 학술적 업적을 기리는 문집이 편찬되는데 《宋元戲曲考》라는 서명으로 수록이 되었다. 문집이 출간된 시기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宋元戲曲考》, 《海寧王忠愨公遺書》, 羅氏天津貽安堂, 1928년.
2. 《宋元戲曲考》, 《海寧王靜安先生遺書》, 1936년.
3. 《宋元戲曲考》, 《海寧王靜安先生遺書》, 商務印書館, 民國 29년(1940년).

《海寧王忠愍公遺書》는 나진옥을 비롯한 왕국유의 지인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이다. 이 판본은 구두점이 없고 세로로 글자를 촘촘히 배열하고 있다. 《海寧王靜安先生遺書》는 1934년 그의 동생 王國華와 제자들에 의해 기획되고 1936년에 출간된 문집으로, 《해녕왕충각공유서》에서 빠진 저작들을 보충하고 인쇄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송원희곡고》의 경우 《해녕왕정안선생유서》본과 《해녕왕충각공유서》본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1940년에 나온 상무인서관의 《해녕왕정안선생유서》본은 1936년본을 재출판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1979년에 臺灣의 상무인서관에서 영인본으로 출간되고, 1983년에는 上海古籍書店에서 《王國維遺書》라는 서명으로 영인되어 다시 출판된다.

1957년에는 中國戲劇出版社에서 《王國維戲曲論文集》을 편찬하면서 《송원희곡고》라는 서명으로 수록하였다. 이 판본은 《해녕왕정안선생유서》본으로 교감한 것으로, 이후 수 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6·70년대 중국대륙은 정치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학술연구 전반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대륙에서는 《송원희곡사》가 출판되지 않았다. 반면 대만에서는 《송원희곡사》가 꾸준히 출판되었다. 이 시기 대만에서 나온 주요 판본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宋元戲曲史》, 王雲五 主編, (臺灣)商務印書館, 1968년, 초판.
2. 《宋元戲曲史》, 學人月刊雜誌社, 1971년.
3. 《宋元戲曲史》, 王雲五 主編, (臺灣)商務印書館, 1975년.
4. 《宋元戲曲史》, 河落圖書出版社, 1978년.
5. 《宋元戲曲考》, 《海寧王靜安先生遺書》, (臺灣)商務印書館, 1979년.

1968년에 출간된 대만 상무인서관본은 《人人文庫》총서의 하나로 출간된 판본이다. 이 판본은 세로로 번체자를 촘촘히 배열하고 있는데, 활자의 배열형식과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가 “국학소총서”본과 흡사하여 이

를 저본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이 판본은 1968년에 초판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80년대에 계속 重印되었는데 이로 보면 대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국대륙의 개혁 개방과 더불어 학술열기도 활발해지면서 《송원희곡사》는 재 출판되게 된다. 이 시기 나온 주요 판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宋元戲曲史》, 王雲五 主編, (臺灣)商務印書館, 1982년 8월, 제6판.
2. 《宋元戲曲考》, 《王國維戲曲論著》, (臺灣)純眞出版社, 1982년 9월, 제1판.
3. 《宋元戲曲考》, 《王國維遺書》, 上海古籍書店, 1983년 9월, 제1판.
4. 《宋元戲曲考》, 《王國維戲曲論文集》, 中國戲劇出版社, 1984년 7월, 제1판.
5. 《宋元戲曲史》, 《民國叢書》 제1편(63), 上海書店, 1989년 10월.

1982년 출판된 대만상무인서관본은 1968년본의 제6판이어서 이와 차이가 없다. 대만의 純眞出版社본은 《王國維戲曲論著》라는 서명으로 왕국유의 다른 희곡논저 7편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판본은 세로로 글자를 배열하고 있으며 번체자로 되어 있다. 上海古籍書店본은 1940년 상무인서관에서 출간한 《해녕왕정안선생유서》를 영인한 판본으로 기본적으로 1940년본과 차이가 없다. 중국희극출판사본은 1957년에 출판된 《왕국유 희곡논문집》의 개정판이다. 이 판본은 80년대 이후 출판되는 《송원희곡사》의 저본이 되었고 학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된 판본이다. 上海書店본은 1934년판 “국학소총서”본을 영인한 판본으로, 吳梅의 《中國戲曲概論》·《顧曲塵談》과 徐慕雲의 《中國戲劇史》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80년대에는 選錄本도 출현하였다. 1987년 陳多와 葉長海가 주편한 《中國歷代劇論選註》에 《송원희곡사》중의 제11장 <원잡극의 구조>와 제12장 <원잡극의 문장>이 주석과 함께 수록되었다.

90년대 들어 중국대륙의 많은 출판사들이 이 책의 학술적 가치와 상업

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여러 종의 《송원희곡사》가 출판되었다. 이 시기 출판된 대표적인 판본들을 시기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宋元戲曲史》，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년, 제1판.
2. 《宋元戲曲史》，東方出版社, 1996년 3월, 제1판.
3. 《宋元戲曲考》，《王國維文集》，中國文史出版社, 1997년 5월, 제1판.
4. 《宋元戲曲史》，岳麓書社, 1998년 8월, 제1판.
5. 《宋元戲曲史》，上海古籍出版社, 1998년 12월, 제1판.

이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송원희곡사》는 90년대 후반기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데 모두가 제1판으로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97년이 왕국유 탄생 120주년이 되던 해여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전문저작들을 출판한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이들 판본들은 현대 독자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과 다른 문장부호·구두점·문자 등에서 약간 수정을 가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중 上海古籍出版社본은 葉長海의 해설과 《송원희곡사》관련 후인들의 서평과 문장을 수록하여 독자들에 이해를 돕고 있다. 東方出版社본은 왕국유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曲學大師 吳梅의 《中國戲曲概論》을 함께 수록하고 있고, 岳麓書社본은 오매의 희곡논저 《중국희곡개론》과 《顧曲塵談》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당시 희곡연구의 상황을 일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송원희곡사》는 여러 출판사에서 꾸준히 출판되었다. 이 시기 출판된 판본들은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희곡관련 삽화와 유관 자료 및 주석을 첨가하여 90년대에 나온 판본들에 비해 학술적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판본들로는 다음과 같다:

1. 《宋元戲曲考》，《王國維文學論著三種》，商務印書館, 2001년 3월, 제1판.
2. 《宋元戲曲史》，百花文藝出版社, 2002년 1월, 제1판.
3. 《宋元戲曲史疏證》，復旦大學出版社, 2004년 8월, 제1판.

4. 《宋元戲曲史》, 團結出版社, 2006년 1월, 제1판.
5. 《宋元戲曲史》, 中國書籍出版社, 2006년, 9월, 제1판.

이 시기는 우선 출판사가 더욱 다양해졌고, 90년대 나온 판본처럼 역시 제1판으로 출간되었다. 이중 상무인서관본은 1940년에 출판된 《왕국유유서》를 저본으로 하고 中國文史出版社본과 1983년판 《왕국유희곡논문집》본을 참고하였다. 이 판본은 교감을 하면서 수정한 부분이나 원문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밝혀놓고 있다. 이 판본에는 왕국유의 다른 문학논저 《紅樓夢評論》과 《人間詞話》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百花文藝出版社본은 왕국유의 또 다른 희곡논저인 《희곡고원》·《녹곡여담》·《고극각색고》·《신편녹귀부교주》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왕국유의 희곡 연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復旦大學出版社본은 최초의 《송원희곡사》주석본이자 학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본은 華東師範大學出版社본을 저본으로 하고 끊어 읽기와 구두점 상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고, 기존 판본에서 볼 수 없었던 전편에 걸친 상세한 주석을 달고 있는데, 특히 인용문에 대한 출처를 상세하게 밝힌 점, 왕국유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은 점,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점이 돋보인다. 본서에 주석 작업을 한 馬美信은 <前言>에서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宋元戲曲史疏證》의 내용은 세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풀어 설명한 점이다. 《송원희곡사》에 인용된 자료들은 매우 방대하고, 자료의 해석과 논술 또한 간단하고 게다가 왕국유는 속어에 가까운 문언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독자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본 《疏證》은 이 책의 문자와 논술에 대해 필요한 주석과 설명을 하였다. 둘째는 보충하고 증명한 점이다. 시간적 제한과 자료의 부족으로 《송원희곡사》는 몇몇 문제에 대한 논술이 전면적이고 상세하지 않다. 본 《소증》은 현재 희곡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 자료상에 약간의 보충을 하는 동시에 이론상으로도 심도 있는 서술을 하였다. 빠진 것들을 찾아내어

보충한 것이 실제로 한 일이다. 세 번째는 오류를 바로 잡았다. 《송원희곡사》 중의 오류에 대해 본 《소증》에서는 하나하나 바르게 교정하였다.²⁹⁾

마미신의 이러한 작업은 다른 어떤 판본보다도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해주었고,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일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團結出版社 본은 가장 최근에 나온 판본으로 많은 사진과 고대 희곡관련 삽화들이 들어가 있고, 오매의 《중국희곡개론》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王國維年譜》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6월에 學古房에서 권용호가 《송원희곡사》를 번역 소개한 것이 최초로 보인다. 이 역서는 1984년판 중국희극출판사본을 텍스트로 하였으며, 역서의 앞부분에 南京大學 俞爲民 교수의 서문이 있고, 약간의 주석을 포함해서 부록으로 왕국유의 희곡 序跋文 몇 편을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고 있다.

V. 《宋元戲曲史》의 중국희곡연구에 대한 영향

《송원희곡사》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희곡 관념을 가지고 방대한 문헌 속에서 희곡관련 자료를 찾아 고증과 귀납을 통해 중국희곡의 형성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그 가운데 전통문인들에게 줄곧 무시되어왔던 원잡극과 남희의 문학적 가치를 긍정하여 희곡을 시·사에 버금가는

29) 馬美信 疏證, 《宋元戲曲史疏證》(第1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년) 15쪽: “《宋元戲曲史疏證》的內容有三方面: 第一是詮釋. 《宋元戲曲史》引用的材料十分廣博, 對材料的解釋和論述又比較簡單, 加上王國維使用的淺近的文言, 使一些青年讀者在閱讀此書時會有理解上的困難. 《疏證》對此書的某些文字和論述作了必要的註釋和說明. 第二是補證. 由于歷史的局限和資料的不完備, 《宋元戲曲史》對一些問題的論述不够全面和詳盡. 《疏證》吸取當前戲曲研究的成果, 在資料上作了一些補充, 并在理論上作了進一步的闡述, 實際上做的是補缺拾遺工作. 第三是糾誤. 對於《宋元戲曲史》中的錯誤, 《疏證》一一加以辨正.”

위치로 끌어올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송원희곡사》는 이처럼 20세기 중국희곡사 연구에 의미 있는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출간 초기에는 학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송원희곡사》가 출간될 당시 중국에는 신문화 운동이 펼쳐지면서 중국전통문화가 부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희곡연구에 매진할 수 없었다. 이 책의 가치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19년 1월 傅斯年이 《新潮》제1권에 《송원희곡사》서평을 발표하면서였다. 부사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래 민간서점에서 인쇄되는 각종 문학사와 문학평론서 중에 王靜庵의 《송원희곡사》가 가장 가치 있다. 이외에도 불만한 책이 몇 권 더 있지만 대부분은 봐주기에 딱하다. 왕 군의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중국 운문 중에서 元劇·明曲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만 이를 논하여 체계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배우지 못한 무리여서 그 문장을 평가하고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왕 군의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에 대해 달리 지은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저작은 없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이 분야에 몸을 바친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고,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³⁰⁾

또 1927년 왕국유 사후 많은 학자들이 《國學月報》·《文學週刊》·《國學論叢》 등의 잡지에 문장을 발표하여 중국희곡연구의 시작을 연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송원희곡사》의 영향은 더욱 커졌다.³¹⁾

30) 葉長海 導讀, 앞의 책, 146쪽에서 재인용: “近年坊間刊刻各種文學史與文學評議之書, 獨王靜庵《宋元戲曲史》最有價值. 其餘亦間有一二可觀者, 然大都不入堪入目也. 問王君此書何以有價值? 則答之曰: 中國韻文, 莫優于元劇·明曲, 然論次之者, 皆不學之徒, 未能評其文, 疏其迹也; 王君此書前此別未有作者, 當代亦莫之與京: 所以托體者貴, 因而其書貴也.”

31) 1927년 王國維 사후 그의 희곡상의 업적을 기리는 문장으로는 1928년 4월 《國學論叢》제1권 제3호에 발표된 梁啓超의 《王靜安先生紀念專號序》, 吳其昌의 《王觀堂先生學術》, 趙萬里的 《王靜安先生著述目錄》 등이 있고, 1934년에는 陳寅恪의 《王靜安先生遺書序》와 1936년 趙景深的 《讀〈宋元戲曲史〉》 등이 있다.

그렇다면 《송원희곡사》는 20세기 중국희곡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송·원의 희곡연구를 심화시켰다. 《송원희곡사》에서 처음으로 고증해낸 송·원의 희곡과 그 형식을 후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보충하고 改進함으로써 이 방면의 연구가 특히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송원희곡사》에서 왕국유가 새롭게 고증한 제궁조·원본·남희 연구에서 두드러졌다. 20년대 가장 먼저 《송원희곡사》의 영향을 받아 송·원의 희곡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1924년 《동방잡지》에 발표된 馮式權의 《兩宋同遼的雜劇及金元院本的結構考》를 꼽을 수 있다. 저자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王靜菴 선생은 《송원희곡사》에서 이것에 대해 고증을 하였지만 나는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각 서적의 연구 중 얻은 바를 써서 王 선생의 《송원희곡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³²⁾

이 논문은 《武林舊事》의 “官本雜劇”을 前期 院本으로, 《輟耕錄》중의 “院本名目”을 後期 院本으로 보고 원본의 구조를 살피고 있는데 《송원희곡사》에서 다루고 있는 金院本을 송대까지 확대시켜 논의하고 있다. 馮式權의 논의는 《송원희곡사》에서 고증해낸 극의 토대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원희곡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어 송·원의 희곡을 심도 깊게 다룬 논문으로는 錢南揚의 《宋元南戲考》(1930)·鄭振鐸의 《宋金元諸宮調考》(1932)·李嘯倉의 《宋金元雜劇院本體制考》(1945)를 들 수 있다. 《송원남희고》는 남희의 명칭·형식·聯套방식·전래 등에 대해 상세히 고증하고 있으며, 《송금원제궁

32) 馮式權, 《兩宋同遼的雜劇及金元院本的結構考》, 《宋元明清戲曲研究論叢》1 (제1판; 홍콩: 大同圖書公司, 1979년) 79쪽: “王靜菴先生在《宋元戲曲史》裏, 關於此點曾有所考證, 但我覺得稱微有些籠統; 我將我由各書中研究的所得寫出來, 以供讀王先生《宋元戲曲史》的人的一點小小的幫助。”

조고》는 제공조의 유래·체제·형식·작품 등을 상세하게 고증하고 있다. 《송금원잡극원본체제고》는 雜劇院本의 체제와 그 연출규모를 고증하고 있는데 잡극과 원본을 동일한 체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원잡극으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적 희곡양식임을 고증하고 있다. 이 세 편 모두 자료의 인용과 고증에서 《송원희곡사》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치밀하여 《송원희곡사》의 성과와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50년대에 출간된 胡忌의 《宋元雜劇考》(1957)와 任半塘의 《唐戲弄》(1958) 역시 당·송·원의 희극을 심도 깊게 조명하고 있어 이 방면의 대표적인 논저라고 할 수 있다. 《송원잡극고》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송 잡극과 금 원본의 명칭·연원과 발전·배역명칭·내용과 체제 등에 대해 심도 깊게 고증하고 있다. 《당희농》은 당·오대의 각종 희극과 관련한 형식을 통해 중국희극이 당대에 시작되었음을 고증하고 있다.

둘째는 희곡사의 서술영역을 확대시켰다. 왕국유는 명·청의 전기를 “죽은 문학”³³⁾이라 간주하고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 송·원 희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후대의 희곡연구자들은 명·청의 전기와 花部의 가치를 심분 긍정하고 연구대상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그들은 《송원희곡사》의 연구방법과 서술방법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이어 명·청대 희곡사를 쓰려고 했다는 점에서 《송원희곡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명·청대 희곡사를 다룬 저작은 1930년대 중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30년대 중국희곡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송원희곡사》를 이어 명·청대 희곡사를 쓴 최초의 저작은 盧前的 《明

33) 青木正兒의 《中國近世戲曲史·序》에는 청목정아가 《송원희곡사》를 이어 명·청대의 희곡사를 쓰기 위해 왕국유에게 가르침 청하러 갔을 때 왕국유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明以後無足取. 元曲爲活文學, 明清之曲死文學也.”

34) 1930년대에 나온 중국 희곡사 관련 대표적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盧前的 《明清戲曲史》(1935년)·《中國戲劇概論》(1935년)·青木正兒의 《中國近世戲曲史》(王古魯 譯, 1936년)·周貽白的 《中國戲劇史略》(1936년)·《中國劇場史》(1936년), 徐慕雲의 《中國戲劇史》(1938년).

清戲曲史》를 들 수 있다. 노전은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海寧 왕국유의 《송원희곡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20년이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흠모하였다. 이 저서의 뒤를 이어 이 책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세속적인 분위기속에서 6년을 보내 이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다. 庚午年에 蜀 땅에 있으면서 희곡사를 강의하게 되어 옛날에 읽어두었던 것을 모아 7장으로 묶었다.³⁵⁾

노전의 설명대로 이 책의 체제와 서술방식은 《송원희곡사》와 매우 비슷하여 저자가 의도적으로 《송원희곡사》를 이어 희곡사를 저술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또 1936년 중국어로 번역된 青木正兒의 《중국근세희곡사》 역시 《송원희곡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저자는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忠愍公 왕국유 선생의 《송원희곡사》를 잇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다.³⁶⁾

《중국근세희곡사》는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희→崑曲→花部로 이어지는 명·청 희곡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증하고 있는데 특히 남희 부분은 《송원희곡사》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다. 이상의 《명청희곡사》와 《중국근세희곡사》는 중국희곡사의 서술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으나 그 논의대상은 여전히 “曲”에만 국한되었고 희곡이 가지는 무대예술의 특징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1950년에 나온 周貽白의 《中國戲劇史》는 당시에 나온 중국 희곡사 저작 중에서 최고 수준을

35) 盧前, 《明清戲曲史》, 《盧前曲學四種》(제1판; 북경, 中華書局, 2006년 4월) 5쪽: “海寧王國維《宋元戲曲史》, 行世且二十年. 余髫年讀其書而慕之. 欲踵斯作, 拾其遺闕, 塵氛粟六, 未遑從事. 庚午, 居蜀中, 講授曲史, 因採陳編, 續爲七章.”

36) 葉長海 導讀, 같은 책, 15쪽에서 재인용: “出於欲繼王忠愍公國維先生《宋元戲曲史》之志.”

보여준다. 이 저작은 무대예술의 특징과 문학성을 동시에 중시하고 중국 희곡의 원류부터 京劇의 모태가 된 皮黃劇까지를 아우르는 중국희곡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국희곡사》는 기존 희곡사의 “曲” 중심의 서술과 “송·원 희곡” 혹은 “명·청 희곡”에 국한된 斷代史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희곡을 전면적으로 서술한 진정한 의미의 희곡사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출간되는 중국 희곡사의 저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술한 성과들은 또한 80년대 이후 중국희곡연구에 밑거름이 되어 중국희곡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볼 때 《송원희곡사》는 20세기 중국희곡연구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 길을 따라 중국희곡을 연구하며 수많은 성취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얼마나 심원했는지 알 수 있다.

VI. 맺는 말

본고는 기존의 《송원희곡사》연구가 주로 왕국유의 희곡론 내지 이 책이 중국희곡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이 책 자체의 연구는 이루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그 집필시기와 장소 및 판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왕국유가 중국희곡연구에 종사한 것은 그의 학술인생에서 볼 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중국희곡연구사에서 볼 때 큰 영향을 끼친 의미 있는 시기였다. 그의 희곡연구는 국내시기와 일본 경도시기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시기는 희곡연구를 시작한 1908년 9월에서 북경을 떠나 일본으로 가기 전 1911년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그는 희곡자료의 발굴에서 《송원희곡사》의 집필에 기초가 되었던 《곡록》·《우어록》·《고극각색고》 등의 희곡논저들을 발표하였다. 경도시기는 일본 경도에 온 1911년 11월부터 그의 희곡연구를 마무리한 1913년 1월까지이다. 이 시기에 그는 《원

간잡극삼십종》의 판본을 연구하고 《송원희곡사》를 집필하였다.

1911년 11월에 일본에 온 왕국유는 경도의 전중춘 일대에 정착하였다. 다음에 4월 인근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희곡연구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7월에 《원간잡극삼십종》의 판본문제를 연구하였고, 9월에는 《고극각색고》를 수정하여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마무리 작업이 끝나자 9월경에 《송원희곡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경에 《송원희곡사》를 완성하였다.

《송원희곡사》의 판본은 크게 “국학소총서”본 계통과 《유서》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국학소총서”본과 《유서》본은 《송원희곡사》의 초기 판본으로 이후 출판되는 《송원희곡사》의 祖本이 된다. 이 중 “국학소총서”본 계통은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중국대륙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대만에서 계속 출간되어 통용되었다. 《유서》본은 1950년대 《왕국유희곡논문집》에 수록된 《송원희곡고》의 저본이 되었고, 《왕국유희곡논문집》본은 현대 독자에게 맞는 조판으로 이후 중국대륙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송원희곡사》는 출간된 직후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1919년 부사년이 《송원희곡사》의 서평을 발표하였고, 1927년 왕국유의 사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희곡연구의 업적을 기림으로써 중국 희곡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송원희곡사》는 송·원의 희곡연구를 심화시킨 점과 희곡사의 서술범위를 확대시킨 점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전자의 경우는 2·30년대에 제공조·원본·남회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50년대에는 《송원잡극고》와 《당희농》으로 이어지게 된다. 후자는 송·원 희곡사에서 명·청 희곡사로 그 다음 중국희곡사의 저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중국희곡연구의 발전은 《송원희곡사》에서 제시된 개념과 관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의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연구를 심화했다는 점에서 《송원희곡사》는 중국희곡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王國維遺書》(第1版; 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9.
- 《王國維文集》(第1版;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5.
- 《王國維戲曲論文集》(第1版;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7.
- 馬美信 疏證, 《宋元戲曲史疏證》(第1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8.
- 葉長海 導讀, 《宋元戲曲史》(第1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12.
- 盧前, 《盧前曲學四種》(第1版; 北京: 中華書局), 2006. 4.
- 袁英光·劉寅生 編著, 《王國維年譜長編》(第1版;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 12.
- 陳鴻祥, 《王國維傳》(第1版; 北京: 團結出版社), 1998. 8.
- 袁英光, 《王國維評傳》(제1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8.
- 류창교, 《王國維評傳》(第1版;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5.
-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第1版;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7.
- 解玉峰, 《20世紀中國戲劇學史研究》(第1版; 北京: 中華書局), 2006. 8.
- 吳澤 主編, 《王國維全集·書信》(北京: 中華書局), 1984.
- 周康燮 主編, 《宋元明清劇曲研究論叢》(第1版; 香港: 大同圖書公司), 1979.
- 李嘯倉, 《李嘯倉戲曲曲藝研究論集》(第1版;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94. 10.
- 中國藝術研究院戲曲研究所資料室 編著, 《中國戲曲研究書目提要》(第1版;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92. 7.
- 周華斌, <20世紀的中國戲劇史研究>, 《戲史辨》1, 1999. 11.
- 오수경, <20세기 中國演劇史 연구의 성과와 한계>, 《中國戲曲》7, 1999. 12.

<中文提要>

目前《宋元戏曲史》研究主要侧重于王国维的戏曲观及其在中国戏曲研究史上的意义和局限, 而对该书本身的研究却很少见。本文基于此, 重点分析王

国维的戏曲研究过程、《宋元戏曲史》的成书年代、地方、版本及其对后世的影响。

王国维的戏曲研究可分为国内时期和日本京都时期。国内时期是从开始戏曲研究的1908年9月到离开北京的1911年10月。这期间王国维撰写了《曲录》、《优语录》、《古剧脚色考》等戏曲论著。京都时期是从到达京都的1911年11月至1913年1月。这期间他研究了一些元杂剧的版本问题，并撰写了《宋元戏曲史》。

1911年11月，王国维到达日本后，定居于京都田中村一带。次年4月搬家后，开始整理并总结自己的戏曲研究。1912年7月，他先研究了《元刊杂剧三十种》版本，同年9月修改了《古剧脚色考》，与此同时开始撰写《宋元戏曲史》，次年1月脱稿。

《宋元戏曲史》版本可分为两大系统：“国学小丛书”本系统和《遗书》本系统。“国学小丛书”本和《遗书》本是《宋元戏曲史》最早的版本，同时成为其后出版的《宋元戏曲史》的底本。“国学小丛书”本系统是二十世纪20年代到40年代中国大陆最通用的版本。以后在台湾继续出版。《遗书》本为二十世纪50年代《王国维戏曲论文集》所收录的《宋元戏曲考》的底本。《论文集》本是迄今在大陆最通用的版本。

《宋元戏曲史》出版之后并未引起学者们的注意。1919年傅斯年在《新潮》上发表了介绍《宋元戏曲史》的文章，才受到学者们的重视。1927年王国维自沉于颐和园昆明湖后，许多学者陆续介绍了王国维在中国戏曲研究上的杰出成就，从此《宋元戏曲史》对20世纪中国戏曲研究的影响逐渐扩大。很多学者在《宋元戏曲史》的基础上开始深入研究宋元戏曲，叙述中国戏曲史，从此宋元戏曲研究深化，戏曲史的叙述范围也逐渐扩大了。从这一点来看，《宋元戏曲史》对中国戏曲研究有着深远的影响。

주제어 : 王国维, 宋元戏曲史, 中国戏曲史, 戏曲研究, 版本